

2011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이야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오 인 혜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이야기

The Experience Story of Youth Children According to
Hearing Impaired Family Types.

2011년 0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오 인 혜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이야기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오 인 혜

오인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희	인

201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차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이해	5
1) 부모와 자녀의 이해	5
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갈등	6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7
1)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	7
2) 청각장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10
3. 청각장애인 가족	15
4. 선행연구 고찰	19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22
2. 연구 도구	24
3. 자료 수집	26
4. 자료 분석	26
5. 연구의 신뢰도	27

IV. 연구 결과	
1. 학령기 이전의 경험	28
2. 가족 간 의사소통	29
3. 학교생활 경험	32
4.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40
V. 논의	46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59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61
참고문헌	62
부 록	68

표 목 차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특성	23
<표 Ⅲ-2> 부모의 일반적 특성	24
<표 Ⅲ-3> 질문지 구성	25

ABSTRACT

The Experience Story of Youth Children According to Hearing Impaired Family Types.

Oh, In-Hye

Advisor : prof. Eun-Hee Jeong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research is carried out targeting the three hearing children living with deaf-deaf parent(DD-H), a deaf child living with the deaf-deaf parent(DD-D), three deaf children living with hearing-hearing parent(HH-D), for a total of 7 children with half-structured test an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look into the experience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hearing impaired family typ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experience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 before school age had been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hearing impairment. In the case of hearing children, the relatives had brought them out to get them to acquire spoken language and the children had been teased or shunned from their friends as they use sign language.

Second, In term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y, DD-H and DD-D were using oral method. The differences of the way of communication could give rise to an adverse effect to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ren.

Third, when it comes to the experiences of their school life, although HH-D

goes on to school there is no educational support so they have difficulties studying. In addition, In the case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they expressed their discomfort over wearing a hearing aid. After cochlear implant, there was an individual discrepancy in the aspect of adaptation and use. After school age, DD-H had preference for the job related to their parent regarding their career. In contrast, hearing impaired children preferred challenging to what they are interested in. DD-H opted for institute. Hearing impaired children spent their free time at home or on religion activities etc, which a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with regard to after school activities they are engaging in now.

Meanwhile, all three types of children have shown their tendency of hanging out with friends, working out, participating in club in common, which shows common trait of adolescence.

As to their hopeful education program,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DD-H and DD-D preferred English and exercising respectively. a hearing impaired undergraduate would like to take a course of computer programming himself since for the most part of the university education is geared toward normal students.

Forth, when examining social experiences as a family member, DD-H and DD-D were concerned about their parent safety and feared for separation from their friends. In terms of the prejudice against hearing-impairment, the hearing children admitted their egocentrism personality to the hearing impairment. However, hearing impaired children thought it is attributed to the prejudice of the hearing people. What is more, when solving the problems, the DD-D was dependent on the surrounding people.

As seen above, it is different not only that the experience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hearing impaired family types but their needed support. Therefore, the social educational supports for the each family type must be implement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2010)에서 발표한 청각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2,517,312명 중 260,403명으로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에는 질환,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 87.2%로 나타나 청각장애가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통해 볼 때, 청각장애 가족 구성은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이 대부분이며,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가족 간에는 공통된 의사소통 방법을 공유할 경우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의사소통 시 건청 부모와 건청 자녀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청각장애 부모와 청각장애 자녀는 자연스럽게 수화라는 공통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는 유아기부터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청각장애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시각적 의사소통 수단을 공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소리 없는 세계는 바로 자신들이 속한 세계이므로 청각장애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박병은, 2001). 그러나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사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성숙과 역할 갈등, 현실과 이상간의 불균형, 성적인 욕망과 사회적 금지, 부모에 대한 의존과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원호택, 이민규, 1987).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 형성, 직업준비,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있는 시기이다. 이는 청각장애 유무를 떠나 일반적으로 10대들은 명확하게 표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포위당함을 느끼게 된다.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들 역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변화와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청력손실의 존재는 자기의식과 자기표현을 위한 10대들의 투쟁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이규식 외, 2004).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에 겪는 경험 이외의 부가적인 경험을 한다.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좌절과 열등감을 느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지닌 장애 때문에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기 쉽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이나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유선, 1996).

이러한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청각장애로 인한 부모의 양육 부담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먼저 양육부담과 관련하여 소은숙(2004)은 청각장애 부모가 지각하는 건청 자녀 양육 부담 문제로서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워 건청인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역기능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역할 혼란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염동문과 허명자 그리고 이한우(2002)는 청각장애인 부모가 건청 자녀를 양육 시, 자녀의 수화사용 정도가 높은 경우 의사소통 부담은 적으나,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민감한 반응, 경제 및 사회활동 부담, 자녀의 학습지도와 건청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 자녀양육과 교육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권세정(2006)은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기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 자녀가 가정에서 다른 행동적 특성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학교교육에서도 각각 다른 목표를 제공하는 차이에서 기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정란(2000)은 청각장애 부모가 겪고 있는 양육의 문제는 자녀의 진로결정,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 언어지도 및 자녀의 성장환경에 대한 지도 등을 언급하였다. 박병은(2001) 또한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양육 도우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가족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선경(2008)은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족기능에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경진(2007)은 청각장애인 가정에서의 문화를 살펴본 결과, 청각장애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고, 대부분의 청각장애 부모들은 친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준우(2002)는 농 아동들과 청인아동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은 청각장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청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결

과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면접대상에 있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청각장애 부모의 입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내용에 있어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점에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세 유형의 가족으로 분류 한 후, 청소년기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령기 이전의 경험, 가족 간 의사소통, 학교생활 경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등으로 나누어 자녀 개인의 경험을 알아보고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령기 이전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와 가족 간 의사소통은 어떠한가?

셋째,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넷째,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녀의 사회적 경험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다(유영주 외,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각 장애인 가족이란, 청각 장애를 지닌 부모 또는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부모 또는 자녀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A유형 - 청각장애 부모(Deaf-Deaf)를 둔 건청(Hearing)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서 DD-H로 칭한다.

- B유형 - 청각장애 부모(Deaf-Deaf)를 둔 청각장애(Deaf)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DD-D로 칭한다.
- C유형 - 건청 부모(Hearing-Hearing)를 둔 청각장애(Deaf)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HH-D로 칭한다.

이러한 청각장애인 가족은 청각손상을 가졌는가, 수화를 사용하는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가 등에 따라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이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양육경험과 의사소통 방법,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등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이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이며, 그 중 부모와의 관계는 인격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자녀의 이해

아동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 등을 형성하게 된다(권세정, 2006). 현대사회에서는 교육과 문화 및 오락기관과 같은 사회기관이 자녀의 성장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그들이 가족에 속해 있는 한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된다. 또한 자녀는 중요한 성장기를 부모의 영향 아래서 보내면서 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지식습득, 직업선택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능력의 토대가 가족 안에서 구축된다(유영주, 김순옥, 김정신, 2000). 이렇듯 부모는 양육과 사회화를 통해 자녀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반면 자녀 또한 부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자녀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흥미와 관심이 확대된다. 특히 그들의 성장과 교육에 관계되는 경제적인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키움으로써 부모감이라는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계속 유지되며, 죽은 후에라도 후손을 남긴다는 감정적·안정감·만족감 등으로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이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개선해 보거나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옳은 방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자녀를 지도하면서 계속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부모는 신속한 판단과 가치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은 부모에게 확실한 신념과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부모는 자녀를 키워 봄으로써 인간의 생활주

기를 경험하고, 생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역할, 봉사, 책임 등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느낌으로 인생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조흥식, 2005).

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갈등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사이에서의 갈등은 가정 내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로써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 등 외현적 행동에서부터 내적 긴장감까지를 포괄한다(이주옥, 1993). 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동기와는 달리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또래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는 약화되고 복잡해지며, 전에 없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즉,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욕구와 관심사로 인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는 보다 덜 애정적이며 덜 긍정적인 관계로 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증가된 부모-자녀 간 갈등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유계숙, 1998).

청소년이 부모와 겪게 되는 갈등 영역으로는 숙제나 학교성적,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PC게임하는 것, 방청소하기, TV보거나 음악 듣는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을 적게 보이고 이는 곧 청소년의 높은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4).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장해 가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부모나 성인들의 충고나 가치관에 대한 우선적인 반발과 반항을 유발하기도 한다(유일영, 2005).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의 비판과 의문 제기에 대해 어떤 부모들은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조흥식, 2005).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갈등은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하면 많은 부모들이 힘을 행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접근법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갈등을 해결하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법은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율을 적용하며, 심대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줌으로써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0).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청소년 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1)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

청소년기에 관한 심리사회 이론은 Freud의 성 심리적 발달개념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Erikson(1963)은 청소년기의 발달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특유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내부 기체에 따라 초래되기도 하고 개인과 문화적인 요구를 사회적인 기대치, 규범, 가치 등의 형태로 표출하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빚어지기도 한다(윤운성, 이은하, 2001, 재인용).

Erikson(1968)은 정체성의 형성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기준이 위기 상황을 맞는 것’으로 보았다. Erikson은 성 심리학자들처럼 청소년기를 혼란 및 스트레스의 시기로 보았지만 혼란을 id(원초아)와 ego(자아)사이의 갈등보다는 ‘정체성 위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를 청소년이 개인적·직업적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견고히 하는 필수적 시기로 보았다.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통합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아, 세계,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동안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강병재 외, 2007, 재인용).

이렇듯 청소년기는 성장 급등 현상과 함께 2차 성징의 출현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또래 친구와의 관계 및 불확실한 자신의 진로문제 등을 둘러싸고 자주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이준우, 2002).

(1) 자아 존중감의 형성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류광식, 2002).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삶의 윤희유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금순,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자아 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창조성과 생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저하 및 무능력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적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하게 된다.

김지영(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요인과 또래요인 순으로 가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기 속에 긍정성, 정직성, 책임감과 생활에 대한 보람과 희망의 감정이 넘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방어적 행동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하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이다(이기복, 2002).

(2) 사회성 발달

사회성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김인자, 최연실, 2009). 즉 사회성이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며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전미향, 1997).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심리학적 발달, 특히 정체성 형성 및 친밀성 욕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ullivan(1953)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핵심 요소로 보았다. 그는 청소년 발달을 타인에 대한 친밀성의 욕구 및 표현 정도를 기준으로 청소년기 이전,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인 3단계로 나누었다. 청소년기 이전에서는 친밀성의 욕구가 대체로 동성에게 강렬하게 표현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배타성 및 정도가 아동기 때와는 다르다(Walter Mischel, 2006, 재인용).

즉, 아동기까지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중심의 인간 관계였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서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게 된다. 청소년은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넓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욕구와 함께,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해주는 친구와 우정 관계를 형성하며, 이성 친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윤중희, 정옥분, 2003).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친구관계는 정서적인 지지,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은희, 2004).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간다(임수경, 이형실, 2007).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는 부모에서 또래집단으로, 부모의 의견보다는 또래집단인 친구의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Bandura(1964)는 친구와의 교류가 증가한다고 해서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 및 가치로부터의 이탈이 진행되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과 부모는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결정이나 가치는 부모나 친구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을 반영하게 된다(김금순, 1997, 재인용).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정환경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의 효과를 연구한 Jeffer(1997)는 아동의 긍정적, 공격적 상호작용이 가정환경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부모의 부적절한 보살핌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사회성 발달에서 더 산만하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우울해한다고 한다(김지현, 2004, 재인용).

이렇듯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성 형성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줄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성교제와 부부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직업선택과 영향 요인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기이며, 진로 탐색기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은 개인에게 소득의 원천이 되고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직업은 일종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유형으로 사회생활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 소득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 개인의 생활양식은 직업의 영향을 받으며, 위계적인 직업구조는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양춘, 1993). 또한 청소년기 직업 선택에 있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열망 수준과 직업적 열망수준에 끼친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집단도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육적 열망수준 및 직업적 열망수준에 영향을 끼쳤다. 직업적 성취에는 직업적 열망수준보다도 교육적 성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홍두승, 구혜근, 2001). 이렇듯 직업선택에 있어 교육수준과 또래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족 배경이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계는 표준화된 검사인 진로성숙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중점을 준다. 이희영(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심리적으로 독립한 청소년은 진로결정에 확신을 갖고 자기 주도적이었으며,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현정화(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지시적이고 금지적이거나 부모 중심의 과잉보호를 하면 청소년 자녀의 진로 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의 관계는 청소년의 진로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적성과 소질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진로를 설정할 때 확신을 갖게 되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신은영, 김누리, 2004).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친구관계, 학업성취 수준 등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 신뢰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이은아, 2007).

따라서 올바른 진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직업훈련 경험을 하고 진로탐색에 대해 막연한 생각보다 현실을 인식하고 학업 동기나 진학계획과 같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청각장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각장애 아동은 성인들로부터 적절한 언어적 강화나 피드백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 모델의 발음을 들을 수 없어 건청 아동처럼 성인 모델의 발음을 듣고 모방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거의 언어장애를 수반한다. 이러한 언어장애로 인해 사회적 발달이 제한되고, 개념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식의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과 부적응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므로 생활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손희정, 2003).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청각장애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들이 경험하고 접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경험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접근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1)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

Meadow(1983)는 청각장애 아동의 자아상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가정의 분위기,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수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면서,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일반 부모가 다른 성인 청각장애인들과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청각장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손희정, 2003, 재인용). 또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적 발달은 가족적 요인에서는 가족지지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 요인에서는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정서적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광식, 2002).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적 요인, 학교적 요인, 의사소통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족적 요인으로 민재순(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수화 또는 인공 와우 시술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를 아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동은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장애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그들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혹과 수치감을 갖거나 또는 자녀와의 친근한 느낌을 형성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아동은 진정한 긍정적 정서 및 행동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투사 감정은 자아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김민남, 1995).

두 번째 요인으로 학교적 요인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아동에 있어 특수학교 입학

은 자기와 같은 청각장애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수화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 시기에 교사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송병선, 1992). 만일 청각장애아의 교사가 학생의 실패를 예견하고 이를 피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러한 학습을 받은 청각장애 학생은 대부분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고 의존적이고 낮은 동기 수준을 갖게 되며 낮은 학업 성취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낮은 학업 성취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방해요인이 된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보다 타인의 일관된 인정을 받을 때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이해하게 되는 통로로서 언어를 통한 표현은 인간의 인지 발달, 가치형성 및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이중, 1993). 그러나 청각장애 청소년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학업성취의 저하,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의 제한에서 오는 인성형성의 부조화, 정상적인 과업성취 및 인간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좌절과 열등감의 경험으로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자아 존중감이 보인다(문선희, 1999). 또한 손희정(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아동이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아동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 그리고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종교생활 등 청각장애인들과의 교류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며 청각장애 청소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청각장애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특성인 건청인과 흡사하며 특히 자아 정체성에 대한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나는 왜 말을 못할까?’라는 의문에 부가 된다(윤현정, 2009). 청각장애 청소년의 이러한 고민은 건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가 다름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놀림이나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며 타인을 더욱 의식하고 자신을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결과를 보인다. 청각장애 특수학교 야구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글러브’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야구를 하면서 숨이 차도 기빠도 슬퍼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시합하는 야구장은 항상 조용했다. 이렇듯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이상한 소리를 낼까봐 항상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장애를 숨기려 음악을 듣는 척 이어폰을 끼고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지속적인 억압은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청력 손실은 음성언어에 기초한 언어발달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상적인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원인을 가지고 성장한 환경에서 경험한 특수성은 건청 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 또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최성규, 2000). 이렇듯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에 있어 청각장애 그 자체가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청각장애 청소년의 주변 환경 즉, 부모나 교사의 태도에 더 많이 기인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중승(1971)은 청소년기의 사회성을 사회활동이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대인적응성이 강한 인성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립되는 비사회성은 사회적 접촉을 기피하고, 집단 활동보다는 고립되어 혼자 일하고 활동하기를 원하며, 수줍어하고, 비사교적인 특성이다(김인자, 최연실, 2009, 재인용). 따라서 사회성이란 성격의 한 특성이며 인지적 정서적 발달 관련되어 통합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Hams(1978)는 부모와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결여가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독립성을 낮추고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은진, 2005,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또래 관계는 사회적 발달과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성인기가 되었을 때의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친구가 적으며 그 관계가 부족하여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며 제한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일반학교에 통합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청각장애학교의 친구들과 만남일이 거의 없고, 통합된 학교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건청인 친구들과 원만하고 가깝게 지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늘 청각장애아 집단과 건청 학생 집단 사이의 주변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유선미, 2007).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보이는 인성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충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충동성은 주의 깊게 내적으로 잘 조정·계획되지 않은 상태의 행동을 의미한다. 충동적인 사람은 행동에 앞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점보다 즉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기중심적이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행동의 영향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 발달과정에 있어서는 초기의 특성이다. 이 단계를 지나 아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사회화되어 가는 것이다. 셋째, 고집성이다. 청각장애인들은 흔히 융통성이 부족하며, 변화하는 상태에 자기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행동 가운데 허용될 수 있는 것과 허용될 수 없는 것을 일단 익힌 다음에는 특수상황에서 그것의 변칙적 활용이 거의 불가능 하게 된다(이태영, 1996). 이러한 청각장애인의 특성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의 경험이 제한됨에 따라, 상대방과 소통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아동은 자기 비하적인 자존성을 갖거나 정체감 혼돈으로 인간관계 즉, 사회성면에서 친밀감을 갖기가 어려워 고립감을 갖는다. 실제로 청각장애아들은 친밀감을 가지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람을 갖는 경험도 빈약하다. 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아정체감으로 적극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본질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최성규, 1997).

(3) 진로문제

Super(1957)는 진로발달은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에 걸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 시기에 걸쳐 발달하며,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가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에 등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였을 때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Super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탐색의 시기를 중요시하였으며, 이 시기에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진로 등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주장하였다(변정순, 1990, 재인용).

이러한 청각장애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청각장애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직접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중시한다(원영조, 1990). 따라서 힘든일이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중심성과 미성숙한 문제해결 방식은 성인기 청각장애인들의 높은 이직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김현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각장애인 중 28.1%가 2-3회의 이직, 21.9%가 4-5회의 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직 횟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중인(1999)은 이러한 이·전직의 요인으로 일 자리 감소나 해고등과 같은 타인에 의한 것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적성이 맞지 않거나(20.45%), 월급이 적어서(29.23%) 등과 같은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특수교육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교)에 진학한 비율은 2006년도 6.85%에서 2010년에는 16.2%인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고등교육의 양적인 비율은 증가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그들은 직업생활 적응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강찬기(2002)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직장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 의사소통의 어려움, 동료와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적응 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직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직장 예절 등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권순우, 김병하, 2003).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 진로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능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전문적인 직업 교과도 중요하나 청각장애인들은 직업의식이나 직업적 성격 형성에 어려움이 지니고 있으며 직장적응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이효자, 1998). 또한 김경진(1996)은 직업교육의 문제로 직업교과목의 부적절성과 비전공 교사의 직업교과 지도, 직업교육시설이나 기자재 확보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직종 개발,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배치,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반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초등부 과정에서는 진로 의식을 가지고 중등부 과정에서는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고, 고등부 과정에서는 직업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서 실제적인 직업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한다(원성욱, 강윤주, 2005).

3. 청각장애인 가족

한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안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의 틀 안에서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의사소통의 문제 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사회심리적인 즉, 내재적인 문제들은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규식 외, 2004).

1) 청각장애인 가족의 이해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이며 그 중 부모와의 관계는 인격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 형성과 함께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가정 특히 부모와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 등을 형성하게 된다(권세정, 2006).

그러나 청각장애 가족의 경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 출산 직후 심리적 충격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태어날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청각장애아의 출생 후 부모는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가져 온다. 또한 이들은 장애의 유무를 최초로 알리는 의사들로부터도 때때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받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과 좌절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과잉보호와 거절, 지나친 간섭과 통제, 낮은 기대감 등으로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양육태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권순우, 김영한, 2004). 청각장애아동의 청력의 손실로 인한 음성언어 발달의 지체가 원인이 되어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강성순, 1993).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청력손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 자녀 혹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건청인 가족 구성원이 청각장애를 받아들이는 한편 청각장애인들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거나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성격이 강하다기 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타협이 잘 안되지 때문이며 그들 나름대로의 고집과 과격한 성격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형성이 자신의 의사표현이 잘 안되어 타협이 어려워질 때 과격한 행동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유순향, 2007).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청각장애인들의 성장배경이나 교육 환경, 개인의 성격, 의사소통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 모두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가족을 살펴보면 Meadow(1981)는 가족 간 의사소통에 있어 애정적이고 성공적인 상호성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 부모를 둔 건청 자녀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청각장애아동들은 부모가 건청인인

건청 아동들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정, 2006, 재인용). 즉,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건청인 부모들이 자녀의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나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이 생기지 않으며, 건청인 부모들에 비해 충격을 적게 받는다.

이를 통해 가족이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청각장애 아동의 최적의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을 위해 사회언어학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각장애인의 건청 형제·자매와의 관계

Turnbull(1996)은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로 출생과 학령전의 시기이다. 만일 장애아가 태어날 때 일반형제가 학령전 아동이라면 그 형제가 나타내는 문제는 장애 아동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혼란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부모들은 대개 장애아 출생과 진단으로 생긴 부가적인 요구와 정서적 타격에 대처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제·자매들의 요구를 무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의 생활주기가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이다. 장애아보다 어린 일반 형제자매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형제를 발달적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순위 형제들은 장애아의 학교 입학으로 새로운 문제에 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의 일반 형제·자매들 또한 장애아로 인해 또 다른 요구를 지니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일반 형제·자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낯선 사람들이 장애 형제를 응시하거나 또래들의 질문 때문에 당혹감을 점점 느끼게 되고 장애 형제의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떠맡겨지거나 장애 형제의 보상으로 성취해야 된다고 여겨지면서 커다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일반 형제·자매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형제·자매가 지닌 장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형제가 성인기에 이르면 대개 결혼과 자신의 아이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장애 형제가 유전성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아를 갖게 되는 공포심을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부모가 사회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있거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장애 형제에 대한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점점 일반 형제·자매에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형제·자매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다(권세정, 2006, 재인용). 이러한 단계를 경험하면서 장애아 형제들은 장애형제가 있음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성숙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자아의식 및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통찰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으며, 직업적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성실함을 배

올 수 있다.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청각장애 아동에게 건청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들은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건청 자녀들이 장애 자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장애 자녀로 인해 건청 자녀들 자신의 또래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 건청 자녀들이 장애 자녀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항목으로 대화 부족과 무조건 양보하라고 지시하게 되는 경우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등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유순향(2007)의 청각장애인의 건청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관한 연구결과 청각장애는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지체장애나 정신장애처럼 가족들을 심하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건청인 형제·자매들처럼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며 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청 형제·자매는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주고 수화를 해석해주면서 그들 가까이에서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그들은 형제·자매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형제 관계를 통해서 언어, 운동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다(유혜경, 2002).

3) 청각장애인 가족의 의사소통 방법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농아인 공동체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우게 되지만 청력손실 정도 또는 개인적인 언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대화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미혜, 2004).

첫째, 손으로 의사 표현하는 방법인 수화이다. 수화는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주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화를 사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은 친근감을 느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수화는 대부분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혹은 청각장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다. 건청자녀 혹은 청각장애 자녀는 어릴적 부터 부모의 수화를 보며 주변 청각장애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둘째, 구화(독화) 혹은 독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입모양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구화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화는 의사수용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 구화, 독화에 의한 대화법은 음성언어로 대화하는 것과 내용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화 시 상대방과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곤란하며 조명이 비추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의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 등 충분한 상호작용이 없는 사람과 대화 시 전달과정에 있어 왜곡되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유순향, 2007). 이러한 구화나 독화는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며 구화만을 사용 시 단답형 대화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되는 가족기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글을 써서 대화하는 방법인 필담이다. 필담은 대부분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과 대화 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필담은 내용전달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사람과 대화시나 장시간 대화 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한국어의 문장력과 어휘력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글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정자, 2003).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와는 달리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혹은 자녀는 수화라는 의사소통을 사용하지만, 건청 부모 혹은 건청 자녀는 듣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화가 아닌 음성언어가 일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이는 가족 간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집안 분위기에 융합하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서적 불안을 느끼며 특별한 일이나 전달사항을 건네받지 못하여 이웃과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 일상적인 교제 시에도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아 초조함을 갖게 되고, 부모-자녀 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교 회의는 물론이고 교사와의 면담조차 곤란을 겪는 등 정보교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4.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가족과 생활하는 자녀와 관련된 논문을 조사하여 자녀의 학령기 이전의 양육배경,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 청소년

기 자녀의 학교생활, 청각장애인 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실태 등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인 가족과 생활하는 자녀의 학령 전 양육배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진(2007)은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출산 직후 유아기 자녀의 양육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수유, 배설 및 휴식 등을 위한 요구가 충족되는 가운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아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경험과 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옥(2000)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여성 18명 중에서 17명이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위탁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병은(2001)의 연구에서도 청각장애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친척이나 시설에 위탁한 경우가 48.2%였고, 자녀를 위탁한 이유로는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74%로 가장 높았다.

둘째, 청각장애 가족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미혜(2004)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은 수화, 구화, 필담, 몸언어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수화, 구화, 필담구사력부족과 자녀의 수화구사력 부족이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2007)은 청각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최성규(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 면에서 갈등을 겪지 않으며, 청각장애 자녀는 성장과 더불어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청각장애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화발달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자녀가 가족과 상호작용하여 사회화되고, 의사전달 방법과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김경진(2004)연구에서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인 부모와 청인 형제, 자매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지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쌓인 채로 생활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청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학교생활 비교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자경(2007)은 청각장애 중학생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과 학교적응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 중학생은 일반학교 중학생과 비교하여 불안과 우울 정도가 일반 중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청력손실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과 의사소통이나 학업상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정도가 높은 이유로는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일반학생에 비해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넷째, 청각장애 가족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관하여 박정란(2000)의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각장애부모들이 자녀의 진로결정,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 언어지도 및 자녀의 성장환경에 대한 지도 등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가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청각장애라는 한계로 인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박병은(2001)에서도 역시 ‘학령 전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청각장애부모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음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17.9%, 민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혜(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청각장애인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서비스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제공되는 수화통역서비스,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각종 감면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있었다. 민간서비스로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우유와 급식을 제공받는 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 상담이나 가족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각장애 부모의 양육부담,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적응 등 개별적인 연구가 많았으며 청각장애인 가족의 한 구성원인 자녀의 입장에서 연구가 없었고, 청각장애 가족 유형 또한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 대상이 제한적 이었으며, 청각장애 가족 관련 서비스 또한 대부분 청각장애 부모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어 자녀의 입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입장에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학령기 이전, 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의 삶과 경험 등 성장시기별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가지고 심층면담 방법을 실시하여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P시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 면담이 진행되었다. 청각장애 부모와 생활하는 건청 자녀 3명, 청각장애 부모와 생활하는 청각장애 자녀 1명, 건청 부모와 생활하는 청각장애 자녀 3명으로 총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중 청각장애부모를 둔 청각장애자녀의 경우 연구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경기도 P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 가족 외에는 농아인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인 가족의 자녀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인데, 건청 부모와 생활하는 청각장애 자녀 중 한명은 21살의 대학생으로 청소년기를 경험한 입장에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연령, 학력, 장애등급, 교육정도, 직업, 월 소득을 조사 하였다. 자녀의 경우는 연령, 성별, 청각손상, 장애등급, 형제관계, 청각보조장치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자녀의 부모를 만나 연구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사례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에 동의를 얻은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자녀의 특성은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연령은 사례 C3인 20대 대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대의 중·고등학생으로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건청 자녀 모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B1, C1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C2, C3는 각각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는 형제·자매가 없이 혼자인 경우 3명,

2남 중 장남인 경우 1명, 1남 1녀 중 차남인 경우 1명, 1남 1녀 중 장녀인 경우 1명, 2녀 중 차녀인 경우가 1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 등급은 건청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총 4명은 모두 청각장애 2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각장애 자녀의 실청 시기는 선천적인 C2를 제외하고 대부분 후천적으로 만1세 전에 발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자녀의 보청기 착용 혹은 인공 와우 수술 여부를 살펴보면 B1, C1은 보청기를 착용했었으나 현재는 착용 하지 않고 있었으며, C2, C3는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각각 고1, 고2때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가족유형	연령	성별	학력	학교유형	형제관계	장애등급	청각손상시기	보청기및인공와우여부	
청각장애 부모 - 건청 자녀 (DD-H)	A1 (DD-H ₁)	17세	남	고등학교 재학중	일반 학교	1남	-	-	-
	A2 (DD-H ₂)	18세	남	중학교 재학중	일반 학교	1남	-	-	-
	A3 (DD-H ₃)	15세	남	중학교 재학중	일반 학교	2남 중 장남	-	-	-
청각장애 부모 - 청각장애자녀 (DD-D)	B1 (DD-D ₁)	16세	여	중학교 재학중	특수 학교	1녀	청각장애 2급	생후 3개월	미착용
건청 부모 - 청각장애자녀 (HH-D)	C1 (HH-D ₁)	18세	여	고등학교 재학중	특수 학교	1남1녀 중 장녀	청각장애 2급	생후 4개월	미착용
	C2 (HH-D ₂)	18세	남	고등학교 재학중	일반 학교	1남1녀 중 차남	청각장애 2급	선천적	고1때 인공와우 수술
	C3 (HH-D ₃)	21세	여	대학교 재학중	일반 학교 졸업	2녀 중 차녀	청각장애 2급	만1세	고2 때 인공와우 수술

한편, 연구 참여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2>를 보면, 부의 연령은 40대 5명, 50대가 2명이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명, 중학교 졸업이 3명, 고등학교 졸업이 1명, 대학교 졸업이 2명이었다. 장애 등급은 건청 부모를 제외한 청각장애 부모 4명 모두 청각장애 2급이었으며, 직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족의 평균 월 소득은 한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80~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은 40대 5명, 50대가 2명으로 부의 연령대와 비슷하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명 중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졸업이 1명, 대학교 졸업이 1명으로 부의 학력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은 건청 부모를 제외한 청각장애 부모 4명 중 3명이 청각장애 2급이고, 1명이 청각장애 3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건청 부모를 제외하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계약직이나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 부모의 일반적 특성

가족유형			설문 응답자	연령	학력	장애등급	직업	가족의 월 평균소득
청각장애 부모 - 건청 자녀 (DD-H)	A1 (DD-H ₁)	부	O	53세	중졸	청각2급	제화제작	100만원
		모		52세	초졸	청각2급	주부	
	A2 (DD-H ₂)	부	O	47세	중졸	청각2급	제화제작	180만원
		모		40세	초졸	청각3급	식품업	
	A3 (DD-H ₃)	부		42세	대졸	청각2급	목사	80만원
		모	O	42세	초졸	청각2급	주부	
청각장애 부모 - 청각장애자녀 (DD-D)	B1 (DD-D ₁)	부		45세	중졸	청각2급	건축업	100만원
		모	O	42세	중졸	청각2급	주부	
건청 부모 - 청각장애자녀 (HH-D)	C1 (HH-D ₁)	부		46세	고졸	-	건설업	700만원
		모	O	46세	고졸	-	미용업	
	C2 (HH-D ₂)	부	O	45세	초졸	-	의상제작	200만원
		모		43세	초졸	-	의상제작	
	C3 (HH-D ₃)	부		51세	대졸	-	회사원	200만원
		모	O	52세	대졸	-	보육교사	

2. 연구 도구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 특성이 강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 중 부모 관련 질문지는 구조적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을 위

해 박병은(2001), 김만영(2006), 유순향(2007) 등이 사용한 질문지를 분석 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여 1차 완성하였다. 1차 완성된 질문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접대상자 7명을 만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불필요한 질문은 삭제하고 이해가 어려운 문장을 수정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인 가족의 자녀와 관련한 질문지는 곽은하(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간단하고 쉽고 편한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성격이 강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농아인 협회 직원 2명과 언어·청각장애 전공 지도교수의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부모와 관련된 질문 13문항과 자녀와 관련된 질문 37문항으로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부모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특성, 학령기 이전의 경험, 가족 간 의사소통, 학교생활 경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등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질문지 구성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질문지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1. 부모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장애등급, 교육정도, 직업, 월 소득	I. 1~13 13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령, 성별, 청각손상, 장애등급, 형제관계, 청각보조장치	II. 1~4 4
3. 학령기 이전의 경험	학령 전 양육배경,	III. 1 1
	청각장애 관련 경험	III. 2 1
4. 가족 간 의사소통	부모 친척 간 의사소통 방법	IV. 1~2 2
	의사소통 시 이해정도와 선호대상	IV. 3~4 2
	의사소통 시 어려움과 대처방법	IV. 5~6 2
5. 학교생활 경험	학교선택과 학교적응 문제	V. 1~4 4
	또래관계	V. 5 1
	진로문제	V. 6 1
	지원내용	V. 7~10 4
	보청기 및 인공와우	V. 11~12 2
6.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자녀가 지각하는 자녀-부모 관계	VI. 1-4 4
	자녀의 심리상태	VI. 5-13 9
총 계		50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경기도 P시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 2월 1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청각장애 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대략적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항을 17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부모와 자녀의 동의를 얻은 후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은 부모가 작성해야할 기초적인 질문과 자녀가 작성해야할 질문지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보낸 후 회수하였다. 이러한 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질문을 추가, 보완, 삭제하여 41문항이 완성되었다.

그 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청각장애 특성에 관한 경험이 축적된 1급 수화통역자격증을 소지한 P시 농아인 협회 실장 1인과 직원 1인, 언어·청각장애 전공 지도교수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본 면담을 위한 50문항의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다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보냈으며, 수신된 질문지 중 추가 질문이나 심층면접이 필요한 자녀와 만나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만나 사전에 보낸 질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적 질문을 하였으며, 청각장애인 가족의 자녀 입장에서 경험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자유스럽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시 음성언어나 수화로 진행되는 경우 녹음 및 비디오 녹화를 한 후 전사하였다. 본 연구자는 3년 정도 수화를 배웠고, 농아인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지만 질문지와 수화 이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P시 농아인협회 직원 2인에 의한 삼각측정법으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 자료 분석

본연구의 자료 분석은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반구조적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부모와 자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자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초적인 질문지를

토대로 추가질문이나 심층면접이 필요한 경우 자녀와 만나 추가로 심층면담을 하였고,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를 전사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기록하고, 수화면담의 내용 중 일부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이나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인 가족들과 3년 전부터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심층면담 시 연구 대상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솔직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질문지와 녹음 및 비디오 녹화된 자료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성과 편견을 줄이기 위하여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박성미 외, 2009). 이를 위해 먼저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본연구자와 1급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P시 농아인 협회 실장, 1급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P시 농아인 협회에 근무하는 수화통역사 직원을 포함한 총 분석자 3인이 질문지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각자 분석한 후 적절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추가로 녹음된 음성대화과 수화 면담자료의 경우, 한글로 전사된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송부하여 질문지 내용에 따른 답변이 그대로 전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언어·청각장애 전공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쳐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령기 이전의 경험

본 연구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학령기 이전의 자녀가 경험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어릴 적 양육 배경, 청각장애로 인해 겪은 자녀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1) 어릴 적 양육배경

청각장애 가족 자녀의 경우 부모 혹은 자녀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유형(DD-H)은 3명 중 2명이 초기 주 양육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다시 부모로 주 양육자가 바뀌었다. 그중 A2의 경우 주 양육자는 부모였지만 유아교육기관의 조기입학을 통해 음성언어 습득의 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유형(DD-D)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C유형(HH-D)은 3명 중 2명은 초기 주 양육자가 할머니, 고모 등 친척이었으며 C3의 경우 부모가 주 양육자였으나 특수학교의 유치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유형(HH-D)의 자녀위탁은 맞벌이나 특수학교가 없는 지방 거주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며, A유형(DD-H)과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A1: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살고 계셔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배웠어요(DD-H₁).

A2: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유치원을 일찍 들어가서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DD-H₂).

A3: 저는 4살까지, 남동생은 2살까지 친할머니와 부모님이 함께 살았어요. 지금도 할머니는 집근처에 사셔서 자주 놀러 오시곤 해요(DD-H₃).

B1: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유치원은 서울 농학교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어요(DD-D).

C1: 부모님께서 농학교가 없는 지방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 농학교가 있는 서울에 올라가 생활하였고, 할머니께서 돌봐 주셨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부모님도 이사 오셔서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HH-D₁).

C2: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원 입학할 때까지 고모님이 돌봐 주셨어요(HH-D₂).

C3: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유치원은 삼성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의 초, 중, 고등학교를 일반학

교를 졸업하였다(HH-D₃).

2) 청각장애와 관련된 어릴 적 경험

A유형(DD-H) 중 A1은 어릴 적 수화를 몰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A2의 경우 부모의 청각장애로 인해 또래들의 놀림과 수화 사용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3는 부모의 청각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어릴 적부터 건청인과 부모님 사이에서 통역의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A3는 부모님과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건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음성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는 등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C유형(HH-D) 중 C1은 청각장애 학교의 유치원을 다니면서 또래들과의 어려움보다는 듣지 못해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는 등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C2, C3의 경우 부모의 권유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을 다녔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따돌림과 놀림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나타났다.

A1: 어렸을 때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릴 때 수화를 몰라서 자주 말을 하지 않았거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DD-H₁).

A2: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도 많이 받고 밖을 나가면 수화를 하는 부모님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시선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DD-H₂).

A3: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부모님에게 전화통역이나 부모님 일과 관련된 통역을 해드려서 그런지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청각장애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청인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건청인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말도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아요(DD-H₃).

B1: 어릴 적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DD-D).

C1: 어릴 때 청각장애로 인해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뒤에서 버스 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다친 적도 있고 잘 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HH-D₁).

C2: 경험이 무수히 많지만 가장 심했던 때는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HH-D₂).

C3: 유치원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어떤 남자가 '애자'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라 욕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지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HH-D₃).

2. 가족 간 의사소통

2절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시 이해정도, 건청인(지인, 친척)과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 시 자녀의 역할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살펴보면 A유형(DD-H)과 B유형(DD-D)의 가족은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웠기 때문에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안 될 경우 필담, 몸짓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C유형(HH-D)의 가족의 주된 의사소통은 구화였으며, 필담, 몸짓의 순으로 수화는 사용하지 않았다. C1과 C2는 가족이 아닌 청각장애 친구나 청각장애 관련 모임을 통해 평상시는 수화를 사용하나, C3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일반학교를 다녀 현재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1은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선호하고 있었지만 B1을 제외한 6명의 자녀 모두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어머니의 독화가 더 익숙하고 대화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청각장애 가족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단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이며,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1: 수화로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글로 써주시거나 수화를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의사소통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남자라서 제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말이 잘 통하기 때문인가(DD-H₁).

A2: 수화로 합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항상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엄마는 말을 조금 하실 줄 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엉터리로 수화를 해도 엄마는 이상하게도 잘 아세요(DD-H₂).

A3: 수화로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5, 6살 때 사고로 귀가 안 들리셨기 때문에 조금의 구화가 가능하시고 특히 어머니가 발음이 더 정확하세요(DD-H₃).

B1: 수화로 해요, 그래도 모를 때는 몸짓으로 하구요, 필담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핸드폰 문자 외에는 부모님과 거의 하지 않아요, 아빠는 항상 바쁘셔서 엄마랑 대부분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DD-D).

C1: 필담으로 합니다, 부모님은 수화를 모르세요, 그나마 어머니와 대화가 더 잘 통해요(HH-D₁).

C2: 구화로 합니다, 제가 입모양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저도 구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지금까지 대화를 많이 해 와서 더 편한 것 같아요(HH-D₂).

C3: 저도 부모님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서로 구화를 사용합니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전

적으로 저의 교육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사소통 또한 익숙해져 아바보단 엄마와 의사소통이 더 편해요, 이해도 잘 되구요(HH-D₃).

2) 건청인(친척,지인)과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시 역할

친척 또는 주변 건청인들과의 의사소통 시, A유형(DD-H)의 자녀 대부분 수화통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유형(DD-D)의 자녀는 친척이나 지인이 방문 시 몸짓으로 대화하고, 수화가 조금 가능한 할머니의 경우는 간단한 수화로 대화하고 있었다. C유형(HH-D)의 건청 부모는 친척들과 왕래가 잦으나 청각장애 자녀는 친척들과 별로 마주치지 않아 거의 대화할 일이 없었으며, 대화 시에도 대부분 구화, 필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친척들이 오시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제가 통역해 드려요(DD-H₁).

A2: 수화통역을 하거나 제가 모르는 수화는 필담으로 해요(DD-H₂).

A3: 부모님과 친척들은 서로 몸짓으로 대화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수화통역을 해드립니다(DD-H₃).

B1: 대부분 몸짓으로 하지만, 할머니는 간단한 수화 가능하셔서(밥 먹자, 잘 지냈니) 더 이해가 잘 되요(DD-D).

C1: 필요 할 때는 필담으로 하는데, 부모님은 친척들과 자주 만나시지만 저는 거의 만나지 않아서 대화할 일이 없어요(HH-D₁).

C2: 잘 만날 일이 없지만 대부분 구화로 해요(HH-D₂).

C3: 구화로 합니다(HH-D₃).

3)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이해 정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자녀가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A유형(DD-H)과 B유형(DD-D)의 자녀는 부모와 같이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시 70~80%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B유형(DD-D)의 자녀는 의사소통 시 부모 대신 통역을 하면서 가족의 사생활을 이야기 하거나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 등으로 부모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C유형(HH-D)은 부모와 자녀 모두 구화를 사용하는 C3를 제외한 C1, C2는 의사소통 시 20~30% 정도만을 이해하며 대화가 거의 안 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 A1: 어릴 때부터 수화가 익숙해서 전 거의 이해해요, 전 부모님의 수화를 보면서 짧은 단어를 길게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무언에 관해 설명할 때 부모님은 이해를 잘 못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오해가 한번 생기면 아무리 수화를 해도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DD-H₁).
- A2: 70%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화내실 때 수화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또 내가 모르는 수화가 나오거나 할 때는 엄마가 말로 조금 말해주세요(DD-H₂).
- A3: 90%이해해요, 모르는 것은 지화로 해주시거나 구화로 해주시고요, 부모님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 밖에 없어서 더 보이는 것에 집착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해해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 오해가 많이 생겨요, 제가 통역을 하면서 건청인들에게 가족사의 이야기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걸 싫어하세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는 건대도 민감하신 것 같아요(DD-H₃).
- B1: 80%정도 이해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부모님은 화가 나시면 감정이 격해져 제가 수화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화만 내시는 것 같아 무서울 때가 있어요(DD-D).
- C1: 부모님이나 남동생이 수화를 몰라 그때만 구화를 사용하고 다른 청각장애인들과는 수화를 사용해요, 부모님과는 무슨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20~30%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화할 때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요, 그럴 때는 필담으로 하거나 그냥 넘어갑니다(HH-D₁),
- C2: 20% 정도 이해해요, 거의 안 될 때가 많고 전 구화보다 수화가 더 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필담으로 해요(HH-D₂),
- C3: 80%정도 이해해요,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다 이해한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화제나 단어로 대화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필담으로 합니다(HH-D₃).

3. 학교생활 경험

3절에서는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교육지원 내용 그리고 보청기 및 인공와우 경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학교 배치 및 선택의 문제

자녀의 학교 배치 및 선택에 있어 A유형(DD-H)의 자녀는 모두 일반학교를 진학하였고, B유형(DD-D)의 자녀 또한 학교 선택의 갈등 없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유형(HH-D) 중 C1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C2와 C3의 경우는 일반학교를 선택하였고 이와 같은 학교 선택에 있어 주된 결정자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A1: 집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선택은 제가 했어요(DD-H₁),
- A2: 초등학교는 할아버지가 정해주셨고, 중학교에서 추천해서 다니게 됐어요(DD-H₂),
- A3: 추천을 통해서 갔어요(DD-H₃),
- B1: 유치원은 서울 농학교를 다녔고요, 초등학교부터는 삼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 별로 상관없었는데 엄마가 삼성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들도 좋고 만족하고 있어요(DD-D),
- C1: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께서 결정해 주셨어요(HH-D₁),
- C2: 초등학교 중학교도 일반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 고등학교도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청각장애 모임을 통해서 나랑 같은 청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학교에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는 저 뿐이었으니까요(HH-D₂),
- C3: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녔고 제가 선택 한 거예요, 지금 다니는 학교도 제가 선택했구요(HH-D₃),

2) 학교 적응 문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유형(DD-H)의 자녀 중 A3는 학교적응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항상 부모님의 장애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알게 되셨을 때 당황하지 않게 헤드리고 부모님과의 면담 시 자신이 옆에서 통역을 헤드리기도 하고 알림장을 통해 선생님과 부모님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B유형(DD-D)의 자녀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도 상위권에 있는 모범생이나, 가끔 사소한 오해로 친구들과 싸우는 등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HH-D)의 자녀 중 C1은 수업내용이나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에 비해 상급학교 올라와서 수화능력이 부족한 선생님이므로 인해 수업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농학교에는 농인교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C2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는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독학을 함으로 인해 수업이해력 부족 등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수학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3의 경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들어서 지루했고 집중하기가 어려워 항상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언니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A1: 불편한 점은 없어요(DD-H₁),
- A2: 가끔 놀리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아요(DD-H₂),
- A3: 전 항상 새 학년이 되면 제가 스스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부모님의 장애를 알려드려요,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옆에서 통역해 드리지만 거의 학교에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학부모 모임이나 행사에도 거의 오신 적이 없어요, 담임선생님도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DD-H₃),
- B1: 농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도 선생님도 수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아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몇 일 전에 사소한 오해로 친구와 싸웠는데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들켰어요(DD-D),
- C1: 농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점은 없었어요,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은 농아인들과 학교를 다녀 좋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새 학기에 일반학교에 다녔던 여학생이 전학을 왔었어요, 그 아이는 체육시간이 돼서 농구랑 피구를 하려고 우리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반학교에는 체육시간이 되면 대부분 여학생이 운동 안하고 쉬는데요, 그래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남학생이든지 여학생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다 함께 참여해서 협동심과 자립심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는 수화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 온 후 수화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불편했어요, 때문에 농학교 닮게 수화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하고 농인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HH-D₁),
- C2: 일반학교에서 저를 위한 배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는 거의 독학으로 공부해요, 이해력이 부족해 성적이 나빴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일반학교를 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면 농인이면 농인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HH-D₂),
- C3: 고등학교까지 수업시간 맨 앞에 앉아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들었어요, 졸 때가 많았지요, 한데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속기사를 고용해서 원활한 청강이 가능하지만, 시간 외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을 때는 불가능해서 많이 아쉬워요(HH-D₃),

3)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와 친구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A유형(DD-H)인 자녀의 친구들은 청각장애 부모를 보고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하면서도 이해해주는 경우 우정이 더욱 돈독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3의 경우 초등학교 때 자신의 부모님의 장애를 알게 된 친구들의 놀림으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A3의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로 남아있었다. B유형(DD-D)인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어 친구들도 수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이야기 하는데 잘 통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유형(HH-D)으로 건청 부모를 둔 청각

장애 자녀 중 C3는 어릴 적부터 구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건청인과의 사귄데 익숙하여 친구관계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C1, C2는 자신의 강한 성격이나 낮은 자존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1: 친한 친구는 4명 정도 있고 친하게 잘 지내요(DD-H₁).

A2: 친구는 많은 편이에요 9명 정도 있어요, 친구랑 노는 건 좋는데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싫어요(DD-H₂).

A3: 지금은 친한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장애를 알고 병어리라면서 무시하고 집단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다 좋아요(DD-H₃).

B1: 우리학교에서 친한 친구는 10명 정도 있고 다 수화를 사용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좋아요(DD-D).

C1: 저의 강한 성격 때문에 우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친한 친구는 2~3명 정도 있어요(HH-D₁).

C2: 의사소통이 어려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고 소심해서 친화력도 부족하고 친구들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HH-D₂).

C3: 대략 4~5명 정도 되요,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수다 떨어요(HH-D₃).

4) 학령기 이후의 진로문제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가 생각하는 진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유형(DD-H)의 자녀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와 관련된 직업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1의 경우 수화통역사, A2의 경우 사회 복지사, A3의 경우 선교사로 또래에 비해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는 건청 자녀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통역이나 부모님의 일을 돕는 등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어 자연스럽게 진로 또한 부모님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유형(DD-D)의 자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인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태권도 선수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유형(HH-D)의 자녀는 구체적인 직업보다는 학교 다닐 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싶어 했으며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A1: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따서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수화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지만

-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때문이에요(DD-H₁).
- A2: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DD-H₂).
- A3: 처음에는 수화통역사였고 그다음에는 특수교사였고요, 최근에 또 바꿨어요,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중국 서북쪽에 선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그들을 돕고 싶어요(DD-H₃).
- B1: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DD-D).
- C1: 학교 졸업하면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국토 대장정, 배낭여행, 해외여행, 토익 여러 가지 도전 해보고 싶어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저하기가 싫고 은뎀으로 다 해보고 싶습니다(HH-D₁).
- C2: 졸업하면, 인맥을 조금 쌓고 사회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외로움이 많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었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청각장애 모임을 알게 되고 수화를 배우고 나서부터 내 자존감이 생겨 사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HH-D₂).
- C3: 내 꿈(미술)을 펼치고 싶어요, 이유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서지요(HH-D₃).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A유형(DD-H)의 자녀는 대부분 사설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반면, B유형(DD-D)과 C유형(HH-D)의 자녀 모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그 중 C1, C2는 교육프로그램보다 사회활동과 관련된 동아리나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C3의 경우 집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글쓰기를 연습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C2, C3의 경우 일반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방과 후 교육이 있어도 배우지 않고 바로 집에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 학원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과 pc방 가요(DD-H₁).
- A2: 학원 다녀요 안 갈 때는 축구해요(DD-H₂).
- A3: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 참여한다, 동생이랑 가정 방문 학습지도 하고 있어요(DD-H₃).
- B1: 학교 공부 외엔 따로 하는 건 없어요(DD-D).
- C1: 교회에 청년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싸이월드 블로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HH-D₁).
- C2: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특기적성이 있긴 한데 혼자 공부하는게 편해요, 집에오면 싸이월드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채팅을 많이 해서 글쓰기가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아요

(HH-D₂).

C3: 따로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글쓰기를 좋아서 항상 책을 읽거나 아리따운 구절이 나오면 몇 번씩 쓰고 썼어요(HH-D₃).

6)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비용 부담

자녀의 국가지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일반학교를 다닌 A유형(DD-H)의 자녀와 C유형(HH-D)의 자녀 중 C2, C3는 학교에서 등록금과 급식비, 우유 등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지원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즉, 체험학습비나 재료비, 육성회비 등은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B유형(DD-D)의 자녀와 C1은 거의 모든 국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육 지원에 대해 국가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A유형(DD-H)의 자녀의 경우 학교 내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청각장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3의 경우 학원을 다녔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다 저렴한 가정 방문 학습지로 교체한 것을 나타났다.

A1: 학교에서는 급식비와 등록금 지원받고 있어요. 등록금은 50만원정도 해요. 그런 것 외에 수련회비 같은거 다 내요(DD-H₁).

A2: 급식비, 우유 이런거는 다 지원받지만, 현장체험학습 같은 건 돈 내요. 학기 초에 부모님 장애 증명서 제출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인터넷으로 했어요(DD-H₂).

A3: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내주세요. 수련회갈 때도 할인을 받아 다른 친구들은 10, 15만원 정도 내는데 저는 3-5만원 내고 갔었어요. 그런데 학원에 다니는 비용은 부모님이 다 내주시는데 동생과 저를 다 보내기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금은 가정방문 학습지로 대체했어요(DD-H₃).

B1: 학교에 돈 내는 거 없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수시로 용돈을 주세요. (DD-D).

C1: 돈은 따로 내지 않아요. 용돈은 부모님이 주시지요(HH-D₁).

C2: 등록금이랑 급식비 지원 받았어요 학원은 안다니고 혼자 공부해요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이 주세요(HH-D₂).

C3: 저는 고등학교를 예고를 나와서 등록금이 비쌌어요. 원래 일반학교는 50만원 정도인데 예고는 90가까이 되었어요. 등록금이랑 급식비 공짜였고, 육성회비나 수업 때 쓸 미술재료비, 대회나갈 때 참가비 같은건 다 제가 냈어요. 신청은 복지카드 복사해서 냈어요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어요(HH-D₃).

7) 여가 활동내용

자녀의 여가 시간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A유형(DD-H)의 자녀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 운동이나 오락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유형(DD-D)의 자녀 B1은 여가시간의 대부분 친구들과 어울리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이 없어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HH-D)의 자녀 중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는 C3의 경우와 달리 C1, C2는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동아리나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같은 청각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요(DD-H₁).

A2: 집에서 컴퓨터 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운동할 때도 있고요(DD-H₂).

A3: 일산 번화가에서 만나 pc방이나 오락실, 게임방을 가요(DD-H₃).

B1: 친구랑 놀아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영화 안봐요 자막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안되요 외국영화만 봐요(DD-D).

C1: 거의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요(HH-D₁).

C2: 친구들이랑 놀아요, 농아인은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컴퓨터도 하루 종일 하면 힘들거요 그래서 대부분 외출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HH-D₂).

C3: 영화감상, 독서, 인터넷 웹서핑 등으로 주로 해요(HH-D₃).

8)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A유형(DD-H)의 자녀 중 A1, A3의 경우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으며,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의 낮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꼽았다. B유형(DD-D)의 자녀 B1은 반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우등생으로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HH-D)의 자녀 중에서 C1은 토익이나 국제수화를 배우고 싶으나 청각장애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많아 아쉬워하고 있었다. 또한 C3는 대학에 입학한 후 대부분의 대학 강의를 비장애인 대상이거나 수화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DD-H₁).

A2: 축구를 더 배우고 싶다, 학교에 축구부가 있긴 한데 경쟁률이 높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DD-H₂).

A3: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영어 점수는 '가' 를 맞아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DD-H₃).

B1: 저번 시험에서 2등을 했어요, 성적은 그 정들 만족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태권도 말고 다른 운동을 배우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운동은 없지만요(DD-D).

C1: 너무 많습니다, 피부, 심자수, 토익, 영어, 국제수화 등등 청각장애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HH-D₁).

C2: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왜 배우지 못했냐면,, 제가 게을러서요(HH-D₂).

C3: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요, 대체로 강의가 비장애인 대상이거나 수화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 되어 있어서 아쉬워요(HH-D₃).

9) 보청기 및 인공와우 여부

A유형(DD-H)의 자녀를 제외한 B유형(DD-D)과 C유형(HH-D)유형의 자녀에게는 위험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건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청각보조장치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B1의 경우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하면서 보청기를 자주 부러뜨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잦아 현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C1의 경우도 어릴 때는 보청기를 착용했으나 착용감이 불편하고 비용의 문제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C2, C3의 경우는 부모님의 권유로 각각 고1, 고2때 인공와우 시술을 받았으나, 인공와우 장치 부착 시 보이는 외관상 이미지 손상이나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함으로 인해 수업시간이나 필요시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1의 경우는 인공와우 시술 후 보청기 착용 시와는 달리 어지럼증이 없고 완벽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C2의 경우 인공와우 시술 초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서 수업 중 쓰러진 경험이 있었으며 음악소리 외에는 음의 높낮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공와우 시술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완벽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시술이 아니며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1: 보청기 있었는데 실수로 부러뜨렸어요, 없는 게 더 편해요 보청기 끼면 머리가 아파요(DD-D).

C1: 유치원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가 2학년인가 3학년 때 고장 난 후부터 착용하지 않아요, 보청기를 비싸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해야 되는 점이 불편했어요(HH-D₁).

C2: 보청기는 유치원 때부터 착용해왔다가 17살 때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어요, 보청기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공 와우는 부모님 권유로 시술 받게 되었습니다, 제 귀는 일단 완전히 안 들렸기 때문에 보청기 낄 때 소리 증폭해서 들리기 때문에 고막 손상이 있었고

어지럼증이 많아서 쓰기가 불편했고 인공 와우는 고막손상이나 어지럼증이 없고 소리가 완벽히 들리지만, 조심히 행동해야 했고 이미지 손실도 있어 불편해요(HH-D₂).

C3: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녔으나 소용이 없어 그 후에 인공 와우 수술을 했어요.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 나니 음의 높낮이도 알 수 있긴 한데 음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리가 잡음 같이 들려요. 또한 착용하고 적응이 잘 안되어 수업을 듣다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HH-D₃).

4.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4절에서는 청각장애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감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유형(DD-H)의 자녀는 부모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또래와 다른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인 자신을 더 잘 보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2의 경우 들리지 않는 부모님에게 자신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 또한 부모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유형(DD-D)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최근에 부모님과의 대화는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은 부모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C유형(HH-D)의 자녀 중 C1은 평소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청각장애 행사나 모임, 교회활동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자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녀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며 농아인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 힘든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C1은 부모를 불편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C2의 경우 또한 부모님과의 사이는 좋으나 농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C3는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 부모님과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님은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본인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감으로 인해 가끔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고 한다. 그

럴 때는 부모님이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A1: 애정표현은 거의 하지 않지만 대화는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오래 대화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거요,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은 나 같은 사람과 산다면 벌써부터 포기할 것 같지만 제가 말썽을 많이 피우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남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DD-H₁).

A2: 전 남자라서 그런지 징그러워 애정표현을 안하지만, 부모님은 남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아이들처럼 다른 환경이라 그런지 더 잘 챙겨주시려고 하고 애정표현도 많이 해주세요, 평소 대화는 학교 일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볼 때 통역할 때나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존재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고 저 또한 역시 부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죠, 바라는 점은 부모님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DD-H₂),

A3: 부모님 두 분 다 8살 때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셔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세요, 그래서 그런지 나와 동생에게 애정을 듬뿍 쏟아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안아주시고 보듬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8시30분마다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때 가족끼리 대화 하고요, 오늘 하루 잘못된 것들 반성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서로 대화해요, 전 이 시간을 참 좋아해요 (DD-H₃),

B1: 어릴 적에는 애정표현을 많이 했으나 중학교 올라오면서 거의 하지 않고 내가 싫다, 징그러워, 대화는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 왔을 때나 성적표 나온 날 등 특별한 일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에게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DD-D),

C1: 평소에 애정표현은 잘 안합니다, 평소 대화는 학교 갈 때나 집에 늦게 들어올 때 문자로 하고요, 대부분 대화는 길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은 저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농아인의 문화와 의사소통을 너무 모르시고 또 이해조차 하시려 하지 않으세요, 또 저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없어서 일일이 간섭하고 책임받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HH-D₁),

C2: 애정표현은 많이 해주세요, 항상 격려해주려고 하고 그래요, 평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지만 늦게 들어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단히 이야기 합니다,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농인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HH-D₂),

C3: 대체로 애정표현은 잘 하는 편이에요, 평소 대화는 일상생활이나 친구들 이야기,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해요, 정치색이나 종교, 제가 미술 관련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미학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HH-D₃),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알아보면, A유형 (DD-H)의 자녀 모두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다는 걱정보다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유형(DD-D)의 자녀 B1은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는 수년 동안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학교 보다 학생 수도 적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사나 전학 등 갑자기 찾아오는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력도 약한 편이다. 반면, C유형(HH-D)의 자녀는 모두 새롭고 낯선 환경에 대한 노출에 있어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모님은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없으니깐요, 부모님과 친한 농인 분들과도 헤어져야 한다면 부모님이 심심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지만요(DD-H₁).

A2: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간다면 같은 지역에 장애인분들과 떨어져서 친구가 없을 듯 그럼 심심해하실 것 같은데요(DD-H₂).

A3: 저와 동생은 멀리 이사를 가도 적응을 잘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직장도 파주 근처시고 저 없으면 줄음운전 하실 것 같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네요, 부모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DD-H₃).

B1: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가족이 멀리 떨어지면 많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전학도 가기 싫어요, 지금 친구들이 좋은데요(DD-D).

C1: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한다면 솔직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HH-D₁).

C2: 심정엔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HH-D₂).

C3: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상관없어요(HH-D₃).

3) 장애에 대한 가족(형제, 자매)의 이해 정도

청각장애를 지닌 자녀 혹은 부모에 대한 가족의 장애 이해 정도에 있어, 형제·자매가 없는 자녀의 경우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들과의 잦은 왕래를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유형(DD-H) 자녀의 형제·자매는 모두 수화가 가능하기에 자신이 없어도 이해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HH-D) 자녀의 형제·자매는 대부분 구화, 몸짓으로 대화하고 있었으며 부모와는 또 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장애로 인해 부모님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쏠렸던 것에 대해 형제·자매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 잘 이해하고 내가 없어도 이해할 정도이다(DD-H₁),
- A2: 잘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3형제, 어머니는 6남매로 자라셨는데 두 분만 농인이시구요 (DD-H₂),
- A3: 친척들이 대부분 간단한 수화는 가능하고 외할머니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사셔서 자주 놀러 오시곤 해요(DD-H₃),
- B1: 전 혼자라서 가끔 심심할 때나 부모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을 때면 오빠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할머니와 고모가 집근처 사셔서 자주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DD-D),
- C1: 남동생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내가 수화를 가르쳐 줘도 꼭 지화로만 대화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화만으로 대화를 해서 동생의 지화 속도는 엄청 빨라요, 농담도 지화로 할 때면 웃길 때가 많아요(HH-D₁),
- C2: 누나가 한명 있는데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누나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요즘엔 거의 잘 어울리지 못해요, 지금은 다 커서 그러려니 하지만 누나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누나를 많이 신경써주시지 못했거든요(HH-D₂),
- C3: 저의 장애를 알게 된 후 엄마는 직장을 그만 두시고 전적으로 저의 교육을 전담하셨고 지금까지도 저 때문에 엄마는 항상 이리저리 바쁘세요, 때문에 언니가 많이 소외당하고 불만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기엔 사이는 좋으나 깊은 속마음이나 아픈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언니는 날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난 언니를 존경해요(HH-D₃),

4) 청각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생각

청각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구체적인 자녀의 생각으로, A유형(DD-H)의 자녀 모두 청각장애인의 자기중심성과 강한 자기주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C유형(HH-D)의 자녀 C1, C2는 사회가 주는 환경이나 건청인들의 편견이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을 자기중심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DD-H₁),
- A2: 그런 것 같아요, 듣지 못하고 보는 것 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DD-H₂),
- A3: 제가 아직 수화가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를 할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결제대금을 낼 때 제가 돈 액수를 잘못말해서 더 많이 결제하셔서 손해를 보고 내신 적이 있고요, 입금날짜를 잘못 말해드려 손해를 보신 적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후 더욱 더 본인의 주장을 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DD-H₃),
- B1: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DD-D),
- C1: 사회가 주는 환경이 청각장애인들을 그렇게 만듭니다(HH-D₁),
- C2: 그건 오히려 건청인들의 편견들이 청각장애인들을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세계 만들었습니

다(HH-D₂).

C3: 듣지 못하는 자의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 외에 나머지 생활에서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투가 다른 사람의 눈에 그리 비춰지는 것 같다(HH-D₃).

5) 부모 의존도

곤란한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A유형(DD-H)과 C유형(HH-D)의 자녀는 먼저 혼자해결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1은 어릴적부터 부모님의 독립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서 또래의 청각장애 친구들의 의존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반면, B유형(DD-D)의 자녀 B1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스스로 해결합니다(DD-H₁).

A2: 스스로 해결해보고 안되거나 어려운 것은 부모님에게 의존합니다(DD-H₂).

A3: 먼저 인터넷이나 여러 곳을 찾아보고 혼자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부모님을 잘 아는 건청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거든요(DD-H₃).

B1: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요(DD-D).

C1: 스스로 해결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살아와서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농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한 나를 신기하고 부러운 농인들의 문화를 알게 됐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주는 환경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장애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HH-D₁).

C2: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될 경우 부모님께 조언을 구합니다(HH-D₂).

C3: 부모님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해결해요(HH-D₃).

6) 청각장애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경험

청각장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A유형(DD-H)의 자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의 부양 의무를 생각하는 등 모두 또래에 비해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자녀들이 심리, 사회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면서 삶의 변화 또한 부모와 관련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B유형(DD-D)의 자녀 B1 또한 부모님은 자신의 삶이 일부분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찾고자 하는 자립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HH-D) 자녀의 경우 전반적으로 건청 부모의 사회적 자립을 강조했던 양육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건청 부모는 자녀가 어릴 적 자녀의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양육방식이 자녀의 현재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옛날은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철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수화교실에서 건청인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세요, 전 시간 날 때 면 같이 가서 통역도 해드리고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수화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DD-H₁),

A2: 나중에 크면 부모님을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는 생각은 해요(DD-H₂),

A3: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청각장애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서 수화가 익숙하고 어쩔 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꿈도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DD-H₃),

B1: 아직은 제가 어려서인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면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DD-D),

C1: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눈을 흠쳐라인데요, 이것은 제가 귀를 못 듣기 때문에 귀대신 모든 것을 눈으로 흡수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하도록 책임기와 영화감상과 독후감 쓰기와 혼자 슈퍼 장보기, 은행 업무 보기 등 여러 가지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곤 하셨어요, 그 덕분에 청각장애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당한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HH-D₁),

C2: 비록 학교생활은 힘들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에 의해 내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가족의 원칙으로서 장애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혼자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HH-D₂),

C3: 저의 좌우명은 'carpe diem' 입니다, 지금 순간을 즐겨라 는 뜻이죠,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난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HH-D₃),

V.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P시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3명,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1명,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3명으로 총 7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연구의 내용은 청각장애 가족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령기 이전의 경험과 가족 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경험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등을 조사 연구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학령기 이전의 경험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학령기 이전의 자녀가 경험한 내용은 어릴 적 양육배경, 청각장애와 관련된 경험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 양육은 가족 유형에 따라 주 양육자와 양육환경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건청 자녀의 음성언어 습득을 위하여 친척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부모가 양육하더라도 유치원에 조기입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동일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3명 중 2명은 어릴 적 주 양육자가 할머니, 고모 등 친척이었으며 이는 맞벌이나 부모의 지방거주로 인한 특수학교 전학 등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1명은 부모가 주 양육자였으나 청각장애 학교에 속한 유치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로 어머니의 전적인 보호 하에서 수유·배설 및 휴식 등을 위한 요구가 충족되는 가운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건청 부

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어릴 적 유아기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 가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 심리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청각장애와 관련된 자녀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청각장애 특성상 음성 언어 대신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화 시 건청인들의 시선을 받게 되면서 부모의 청각장애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청 자녀가 부모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적 경험의 기억이 있는 건청 자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청각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수화를 배우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통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청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음성언어 습득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경험을 한 건청 자녀는 일부러 부모와 말을 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거나 놀림을 받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어릴 적 특별히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김경진(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들리지 않아 생기는 청각장애 자녀의 사고, 따돌림의 경험, 친구들이 자신을 ‘애자(장애인을 비하 하는 말)’라고 놀렸던 부정적인 경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며, 김자경 등(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중학생에 비해 청각장애 중학생이 갖는 우울한 정서나 흥미상실의 문제나 행동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모나 혹은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 생각, 사상, 태도 등을 전달해주고 상호활동을 조장하며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인 역할을 한다(이미혜, 2000). 따라서 청각장애가족 유형에 따라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의사소통 시 이해정도, 건청인(지인, 친척)과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 방법,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감 정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면에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주된 의사소통으로 청각장애 부모와 같은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안 될 경우 필담, 몸짓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선(2009)의 연구에서 건청 자녀가 청각장애 부모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녀와 원활한 대화를 위해 수화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건청 부모와 청각장애 자녀 간 주된 의사소통은 구화였으며 필담, 몸짓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수화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중 청각장애 자녀 2명은 평소 청각장애인들과 대화에서는 수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이해 정도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는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 부모와 같은 수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70~80%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와 자녀 모두 구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자녀는 80%정도를 이해하고 있었고, 건청 부모는 음성언어를, 청각장애 자녀는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자녀의 경우는 겨우 20~30%정도만을 이해하고 있었다. 김경진(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건청 부모와 청각장애 자녀간의 적은 양의 이해 정도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상호간에 언어 문제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가족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의 결정자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와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므로 의사소통이 거의 없거나 극히 단순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친척 혹은 지인 등의 건청인들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자녀의 역할을 살

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대부분이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청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부모관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미혜(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 혹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대부분은 친척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며, 대화 시에도 대부분 구화와 필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처음에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만 성장할수록 참석하더라도 다른 방에 있거나 아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청각장애인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며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언어적 소수자로 생각하며 이러한 생활이 사회생활과도 연계되어 사회활동 또한 위축되게 된다(Gregory, 1992).

이와 같이 건청 자녀와 달리 친척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비슷하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친척들과 수화를 사용하거나 짧은 문장의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자녀와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가족은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 혹은 부모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을 위해 친척들과의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부모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또래와 다른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더 잘 보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특별한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즉,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들은 부모가 청인인 청인 아동들과 생활면이나 가치관 정립 면에서 동등하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김경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를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부모님과의 사이는 좋으나 가끔씩 생기는 오해로 인한 갈등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이 동일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결과이며 이미혜(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 부족의 문제는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화교육, 가족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모와 자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학교생활 경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변화가 활발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족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주요 장소가 바로 학교이다(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이러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 학교 배치 및 선택의 문제와 자녀의 학교 적응 여부, 친구들과의 관계, 학령기 이후 진로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의 학교 배치 및 선택의 문제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모두 자연스럽게 일반학교를 진학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또한 학교 선택의 갈등 없이 어머니의 추천으로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선택하여 다니고 있었다. 반면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세 명 중 한 명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두 명은 일반학교를 선택하였고 학교 배치 선택에 있어 주된 결정자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학교에 진학한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수화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청각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 청각장애 관련 정보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교 적응 면에서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는 학교적응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부모님의 장애를 먼저 알리고 면담 시 자신이 통역을 하기도 하며 알림장을 통해 선생님과

부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는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적 또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면담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의 답변으로 심층면담이 필요하였다. 이는 유정희(2006)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음성언어 표현의 곤란은 문자 언어 표현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라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며, 문장표현은 더욱 미숙하고, 청각장애가 인지 발달까지 저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학생은 생활 속에서 의미중심의 독서지도 등을 통해 책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접하면서 읽기 능력과 쓰기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 수업내용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족한 교사의 수화구사력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학교에 진학한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는 수업시간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선애(2009)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배치 기준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부모의 욕구에 의해 무리한 통합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합교육 현장에 청각장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학생이 특수 교육적 지원 없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진정한 통합교육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통합교육 시행에 있어 무조건적인 부모의 통합교육 인식에 대해 재고해야 할 점이다.

셋째,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와 친구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친구들은 부모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놀라서 신기해하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등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건청 자녀 혹은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학교는 일반학생들에게 장애 이

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 이연경(2003), 정선화(1992)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정보의 전달, 비디오를 통한 간접 경험, 초청 강연과 장애체험 등으로 구성된 장애수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일반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는 학교 친구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협동심이나 자립심 등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행동양식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동류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청 자녀를 제외한 청각장애 자녀의 보청기 및 인공 와우 여부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 활동하면서 보청기를 자주 부러뜨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잦아 현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한명은 어릴 때는 보청기를 착용했으나 착용감이 불편하고 비용의 문제로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두 명의 자녀는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각각 고1, 고2때 인공 와우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은 보청기 착용에 비해 어지럼증이 덜하고 거의 완벽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명의 경우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쓰러졌으며, 음의 높낮이나 음악소리만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인공 와우 장치 부착 시 보이는 외관상 이미지 손상이나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함으로 인해 수업시간이나 필요시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와우는 보청기와 같이 하나의 보장구에 속하는 것이지 모든 청각장애인을 청인으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며, 또한 인공와우 수술 후 개인 변인에 따라서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는 원활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의 결정이나 여론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하여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가 생각하는 학령기 이후의 진로문제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는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선교사 등 또래에 비해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혜(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청 자녀는 어릴 적부터 들리지 않는 부모를 대신 해 부모의 직장, 방송내용, 전화 통역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통역을 수행하거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로 또한 부모님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진로문제에 있어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구체적인 진로 보다 학교 다닐 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싶어 했으며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원성옥·강운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일의 세계에 대한 태도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형성되어 발달하므로, 이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가족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자녀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자녀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대부분은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는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는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고, 활동을 하더라도 학업 외 활동으로 종교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학원을 다니더라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곱째,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족이 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었다. 대신 학교급식비, 수련회 비용 등 학교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설 학원 비는 부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건청 부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청각장애 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성주연과 최성규(2006)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치료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또한 김근식과 소은숙(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수화

통역과 자막방송이면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녀의 여가 활동 내용으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는 음악듣기, 친구들과 운동하기, 오락하기 등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이 없어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권선진(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수화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영화, 연극 등 문화영역과 접근권 영역에서 차별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대부분 종교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보내고 있었다.

김한철(2004)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타인과의 유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사고와 건강한 신체조성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사회성의 발달과도 연결됨을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매우 폭넓은 범위의 활동을 시도하고 즐기는 단계로 야외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학업성적 및 집중적 향성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대부분 부진한 특정 학업교과의 보충학습을 원했으며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였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반에서 1, 2등을 하는 우등생으로 지금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어 학업보다 운동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중 한명은 십자수, 토익공부나 국제수화를 배우고 싶어 했으나 청각장애 때문에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는 대학 강의가 비장애인 대상이거나 수화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

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각장애 성인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농아인 협회’, 청각장애 대학생의 모임인 ‘한국 농아인 대학생 협회’ 뿐 아니라 청각장애 자녀를 위한 모임을 통해 건청인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청각장애 자녀의 심리적 문제들은 자녀 혹은 부모의 청각장애 그 자체로 야기되는 것보다 그들이 경험하고 접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경험정도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접근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 가족의 자녀가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 정도,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에의 의존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자녀의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의 부재 혹은 갑작스러운 이사, 전학 시를 가정한 느낌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모두는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다는 걱정에 앞서 부모님의 적응 문제, 통역 문제 등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혜(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청 자녀는 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부모-자녀의 역할을 역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세 명 모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에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와는 달리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강한 적응력은 장애 유무가 아닌 어릴 적 부모님의 양육방법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건청 부모는 간단한 심부름, 예금 인출하기, 준비물 사기 등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자립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는 박향희(2006)의 연구와 같이 애정적-자율적 태도를 지닌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고 사교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하여 적대감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렇듯 누구나 낯선 상황이나 환경을 접하게 되면 불안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고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 훨씬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녀가 타인의 도움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을 갖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혹은 부모)의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면, 형제·자매가 없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혹은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집근처에 살면서 왕래가 잦은 친척(할머니, 고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형제·자매와는 가깝게 지내고 있었으나, 형제·자매가 건청 부모와 마찬가지로 수화가 아닌 구화와 몸짓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 자녀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부모가 상대적으로 청인 형제·자매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순향(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지체장애나 정신장애처럼 가족들을 심하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상인 형제·자매들처럼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청 형제·자매는 그들의 수화를 해석해주고, 그들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인 형제·자매는 청각장애 자녀에게 놀이 친구의 역할이나 고민 상담자의 역할 등 서로에게 의지되는 중요한 존재이나 청인 형제자매 또한 청소년기의 고민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는 청인 자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녀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무관심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건청인들이 청각장애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고집이 세다는 편견에 대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모두 청각장애인의 자기중심성과 강한 자기주장을 인정하고 있었다. 건청 자녀는 부모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틀린 것 이라고 생각하며, 그 때문에 생기는 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각장애인 자녀는 사회가 주는 환경이나 건청인들의 편견이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인·김옥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청각장애인이 타인에 대한 의심이 높은 것은 단순한 장애존재 유무가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청인 보다 시각에 보다 많이 의존하므로 직관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좌절하거나 빈번하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상대자는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그 상대가 청인이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성경희(2007)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각장애인이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하고 상호문제를 갖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고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곤란한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발생 시 부모에의 의존도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해 본 다음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안 될 경우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의 경우 건청 자녀와 마찬가지로 혼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어려울 경우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김용욱(2004)의 연구에서 특수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자기 결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지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자기 결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청각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양의무를 생각하고 있는 등 세 명 모두 또래에 비해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는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찾고자 하는 자립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한편,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건청 부모의 사회적 자립을 강조한 양육 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자녀는 건청 부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현재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가족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P시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3명,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1명,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3명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반구조적 질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조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이전의 경험은 자녀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건청 자녀의 경우 음성언어 습득을 위하여 친인척들에 의해 양육 되었으며,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친척에게 임시위탁 되거나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자녀는 수화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경험과 따돌림을 다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일반학교에서의 장애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 간 의사소통 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 모두 수화를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들은 수화를 알고 있더라도 건청 부모가 수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화를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호간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는 상호간 이해정도가 깊었으나,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농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모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 가족심리상담 혹은 장애인 가족 캠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생활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자연스럽게 각각 일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진학하였다. 반면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학교선택은 부모가 하였으며 각각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로 진학하였다. 학교적응에 있어서 특히 일반학교에서의 청각장애

에 학생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었고, 독화와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는 수화에 대한 또래지도와 발표 등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보청기 착용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인공와우 학생들의 경우는 적응과 활용 면에서 개인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이후 진로문제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 대부분 자신의 부모와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하였다.

정규학교생활 이후 생활에 있어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나, 청각장애 자녀는 집에서 보내거나 종교 활동, 동호회활동 등 학업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들리지 않아 수업내용을 따라가지 못하여 집에서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하였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은 세 유형의 자녀 모두 운동, 영화, 동아리 활동 등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낮은 영어 서적으로 인하여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였으며,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현재의 학업 성적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 중 대학생인 청각장애 자녀는 대학교육이 비장애 학생 대상의 강의가 많아서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넷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을 살펴보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있어서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거부감이 없었으나,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고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강한 자기중심적 성향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청각장애 자녀는 건청인들의 편견이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단계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문제 해결 시 부모에의 의존도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 자녀와 건청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먼저 스스로 해결해 보고 어려운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만, 청각장애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주

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부모부양 이라든지, 부모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의 경험 분석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P시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가족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표집 면에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각장애 자녀의 사례를 한명 밖에 구하지 못해 표집대상에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 출현율을 볼 때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이들 가족을 표집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추후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 가족의 사례 수를 더 확보하여 보완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던, 청각장애 가족 자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 형제·자매에 대한 연구를 보완한다면, 기존의 부모대상 선행연구에서의 제언과 함께 청각장애 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현장이 특별한 교육적 요구와 장애 보상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통합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질적교육권이 확보 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곽은하(2005).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언어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권선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지각과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18(1). pp. 81~103.
- 권순우·김병하 (2003). 농 학생들의 대학생생활 적응(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언어치료연구. 12(1). pp. 125~144.
- 권순우·김영한 (2004).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각장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비교. 언어치료연구. 13(1). pp. 1~18.
- 권세정 (2006). 청각장애자녀와 건청 형제·자매의 양육경험과 학교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비교. 언어치료연구. 15(2). pp. 93~114.
- 권이중 (1993).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양서원.
- 강병재·김영봉·박혜경·최철용·김혜진 (2007). 교육심리학. 고양:서현사.
- 강성순 (1993).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각장애 아동의 지각이 사회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찬기 (2002). 청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요구도 분석.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국립특수교육원(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국립특수교육원(2008). 장애인복지법.
- 김경진 (1996). 청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pp. 23~39.
- 김경진 (2007).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8(3). pp. 249~260.
- 김근식·소은숙 (2005). 지역사회지원망이 청각장애부모의 자녀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19(1). pp. 53~74.
- 김금순 (1997). 학교생활 부적응 여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경성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영 (2006). 가족탄력성 성향에 따른 가족유형이 청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남 (1995). 청소년기 청각장애학생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최연실 (2009). 한부모가족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가정관리학회. 27(1). pp. 145~164.
- 김자경·김주영·김남진 (2007).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 그리고 학교적응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 9(4). pp. 231~247.
- 김종인 (1999). 대학의 장애학생 진로와 대책. 현장특수교육. 6(4). pp. 34~41.
- 김지영 (2010). 남녀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과 자아존중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4). 집단미술치료가 이혼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철 (200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pp. 1059~1070.
- 김현주 (2003). 청각장애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1).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광식 (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희 (1999).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재순 (2007). 수화 사용 아동들과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은 (2001). 학령 전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경 (2008). 청각장애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미·신경숙·박소영·김윤옥·손미 (2009). **질적연구 실천방법**. 서울:교육과학사.
- 박성우·김용옥 (2004). 특수한 학습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자기 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5(4). pp. 251~270.
- 박정란 (2000).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희 (2006). **청각장애아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정순 (1990).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 성경희 (2007). **청각장애인의 주요 호소 문제와 상담활동에 대한 태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주연·최성규 (2006). 청각장애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45(1). pp. 105~126.
- 소은숙 (2004). **청각장애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양육 부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선 (1992). **일부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김누리 (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한국아동교육학회**. 13(2). pp. 185~199.
- 손희정 (2003). **청각장애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 원영조 (1990). **청각장애아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 원성옥·강운주 (2005).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4). pp. 149~173.
- 원호택·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6(1). pp. 22~32.
- 양춘 (1993). **한국인의 전통가치와 직업의식**.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pp. 37~58.
- 유계숙 (1998). **부모의 권력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양상과 순응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선미 (2007). 청각장애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향 (2007). 청각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0).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유일영 (2005).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기적 갈등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8(1). pp. 17~22.
- 유정희(2006). 독서지도 청각장애 중학생의 일기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경 (2002).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윤종희·정옥분 (2003). 인간발달(고등학교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 윤지은 (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정 (2009).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이은하 (2001). 애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학생생활연구. 5(-). pp. 91~127.
- 이규식·국미경·김중현·권요한·강수균·석동일·권순황·정은희·이필상, (2004). 청각장애아 교육. 서울:학지사.
- 이기복 (2002). 심성수련 활동이 학교생활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9). 청각장애 어머니의 건청 자녀 양육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 (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이 장애의 심리적 극복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4). 농아인가족의 의사소통과 자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로 (1971). 성인사회와 청년기의 문제성. 한국심리학회 1(5). pp. 153~157.
- 이상복·정영숙·박충선 (1998).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아와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교육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서·학습장애연구. 14(2). pp. 1~38.

- 이연경 (2003). 장애수용 프로그램이 일반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와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9).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청각장애 성인의 인식 조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선 (1996).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각이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주·현정화 (200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교육학** 논총. 24(2). pp. 29~43.
- 이은진 (200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8(1). pp. 121~162.
- 이은주 (2004).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과 자아개념.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자 (2003). 수화통역사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종승 (1971). 자아개념에 변화에 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준우(2002). 농(청각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들: 비교연구.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5(2). pp 33~48.
- 이태영 (1996). 특수아동의 심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한우 (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자 (1995). 미래사회에 대비한 장애인의 진로교육 방향. **현장특수교육**. 2(4). pp. 8~20.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pp. 239~259.
- 임수경·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pp. 169~183.
- 전미향 (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

- 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화 (1992).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의 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혜인·김옥경 (2009). 청각장애대학생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내용의 질적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0(4). pp. 1~32.
- 조흥식 (2005). **가족 복지학**. 학지사.
- 차재호 (1979). **청소년기-그 발달과 욕구, 국가발달과 청소년**. 배영사.
- 최성규 (1997). **청각장애아 심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최성규 (1999). 청각장애아 문화와 사고 : 청각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한국수화학회**. 1999(1). pp. 8~30.
- 최성규 (2000). 청각장애유아의 가정환경,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조기교육에 관한 소고.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2). pp. 155~17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2008 장애인통계**. 보건복지부.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청각장애아 부모들의 욕구와 지원방안**. 청음연구.
-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Christensen, Kathee M. & Delgado, Gilbert L. (1993). *Multicultural Issues in Deafness*, London: Longman.
- Gregory, S. (1992). The language and culture of Deaf people Implications for education. *Language and Education*, 6. 183-1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York: Wiley.
- Jeffer, L. (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oston, MA : Allyn & Bacon.
- Murphy, L & Corte, S. (1990). School-related stress and the special child. *Special Parent Special Child*. 6. 1-8.
- Walter Mischel 저, 손정락 역 (2006). **성격심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부 록>

「농아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이야기」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농아인과 친구가 되자’는 목적으로 수화를 배우는 건청인들의 모임인 P시 농아인협회 ‘손사랑회’의 홍보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농아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이야기」에 관해 연구하고자 농아인 가족의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응답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농아인 가족의 자녀 입장에서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1. 03. 03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오인혜 올림(010-4194-0123)

I. 부모의 일반적 특성

부모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관련된 일반적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① 청각장애 부모 - 건청 자녀 _____

② 청각장애 부모 - 청각장애 자녀 _____

③ 건청 부모 - 청각장애 자녀 _____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_____ ②여 _____

※ 3~6번 문항은 청각장애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건청 부모에 해당하시는 분은 6번 문항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청각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_____ 급 (

4. 배우자의 청각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_____ 급

5. 귀하는 보청기를 착용하십니까? __①예 __②아니요

6.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_____ 세

7. 배우자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_____ 세

8.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떻습니까?

__①무학 __②초등학교 __③중학교 __④고등학교 __⑤대학교 이상

9. 배우자의 교육 정도는 어떻습니까?

__①무학 __②초등학교 __③중학교 __④고등학교 __⑤대학교 이상

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1.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2. 귀하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13. 귀하는 어느 지역에 삽니까? ()

※ 여기까지는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시는 질문지입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I. 자녀의 일반적 특성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자녀)이 직접 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인과 관련된 일반적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본인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_____ 세

2. 본인의 성별은? ①남 _____ ②여 _____

※ 3~4번 문항은 청각장애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건청 자녀에 해당하는 분은 다음 질문지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청각장애를 발견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만 _____ 세 (_____ 년도)

4. 본인의 장애등급은? _____ 급

Ⅲ. 학령기 이전의 경험

다음은 자신의 어릴 적 성장배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릴 적(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주로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돌보아준 사람, 기관, 시설 / 맡겨진 기간 / 맡겨진 이유 당시 본인의 나이)
2. 자신(혹은 부모)의 청각장애로 인해 어릴 적 겪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Ⅳ. 가족 간 의사소통

다음은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과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수화, 구화, 필담, 몸짓)
2. 부모님과 원가족, 친가족(할머니, 삼촌, 이모 등)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3. 부모님과 의사소통 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4. 부모님 중 의사소통이 잘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언제인가요?

6.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V. 학교생활 경험

다음은 본인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다니고 있는(다녔던) 학교는 어떤 형태인가요?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_____ ② 특수학교 _____
③ 일반학교 특수학급 _____ ④ 학교 중단 중 _____

2. 위의 학교 배치 및 선택은 누구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3. 본인이 다닌 학교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개선점을 말해주세요.

(시설, 수화통역의 문제 등)

4. 자신(혹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5.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가장 친구한 친구는 몇 명인가요?

6.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본인은 방과 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학원,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등)

8. 위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님이 주시나요? 국가지원을 만나요?

9. 본인은 여가시간에 주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나요?

10. 본인은 현재 하고 있는 과외활동 외에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왜 배우지 못하고 있나요?

※ 10~11번 문항은 청각장애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건청 자녀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음 질문지 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청각장애를 발견한 후 언제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와우 수술을 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와우 수술 결과 좋은점과 불편한 점을 말해주세요

VI.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경험

다음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은 평소 본인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는 편인가요?

2. 부모님과 평소 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대화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3. 본인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본인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본인의 가족이 현재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6. 가족(부모, 형제, 자매)들은 나(혹은 부모)의 장애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7. 건청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자기 중심적이다’ ‘고집이 세다’ 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8. ‘말하기’와 ‘글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다면, 평소 ‘말하기’와 ‘글읽기’ 향상을 위한 학습 습관이 있나요?

9. 나(혹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 곤란한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에게 의존, 스스로 해결, 주변 청인 대신 결정)

11. 건청인(농아인)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12. 본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나요?

13. 청각장애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강점, 자신의 가치관, 진로 변화, 자립심 등)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내용이 청각장애인의 질적인 삶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